



# 넉넉한 나눔 정신,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글 / 전 홍 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홍보팀장)

**일** 년 중 가장 풍요롭다는 계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때만 하라는 넉넉한 이 계절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지난 4월부터 실시한 벤처기업들의 '1사 1인 채용 운동'으로 당초 올 연말 목표인 1천명을 넘어서 1143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 기업의 경력직 선호현상으로 이들 취업자 중 62%가 경력사원이고, 신규인력의 취업은 여전히 어렵다는 것이 아쉬운 대목이기는 하다. 하지만, 기업경영을 잘하는 것이 바로 사회공헌(?)이라는 대기업 총수들의 독특한 주장이 판을 치는 가운데 이룩한 성과라 벤처기업들의 넉넉한 마음 씀씀이가 더욱 소중하고 빛난다.

## 필란트로피, 지속적인 나눔의 지원사업

미국에는 '벤처필란트로피(venturephilanthropy)'라는 말이 있다. 굳이 '필란트로피'라는 외래어를 고집하는 이유는 '차선산업'이라는 말이 주는 일방적인 느낌을 피하고 싶어서이다. 벤처필란트로피는 1993년 시카고에서 출범한 민간단체 '아이들 포럼(Children's Forum)'의 프로그램이다. 벤처캐피탈모델을 민간단체에 적용해 저소득층의 자기고용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적·재정적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벤처필란트로피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규모 창업자들은 실질적인 수입과 자산을 늘릴 뿐만 아니라 성공적으로 기업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기업가로서 가져야 할 태도와 기능 그리고 자존감을 배우게 된다.

또한 벤처필란트로피는 일회적인 자금지원과 교육에 그치지 않고 기업경영을 위해 자격을 갖춘 소규모 기업가의 양성에 힘을 쏟는다. 지속적인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하며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주는 것은 물론, 기술지원과 교육·훈련, 재정지원, 물류관리, 전략기획, 인사관리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창업의 문턱을 넘는 초보경영자들을 돕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프로그램이 빛을 발하는 이유는 이렇게 도움을 받아 자립에 성공한 자영업자들이 자신의 연간 총매출액 중 2%를 다시 벤처필란트로피 기금으로 기부, 내부적인 기금의 순환구조를 만들어 지속적인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 1사 1인 채용, 나눔 정신의 실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삼성 등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사회연대은행의 소액대출 등으로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특히 저소득 여성가장의 창업을 돕고 있다. 이미 지난 한해 동안 10여 곳이 창업을 통해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그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과 달리 우리의 경우는 창업 준비에서부터 창업 과정, 창업 이후까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체계가 미흡하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 그야말로 악전고투하며 사업을 꾸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8월말 현재 벤처기업 수는 8500여 개로 지난해 7700여 개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을 준비하는 벤처인들의 노력이 서서히 결실을 맺는 것 같아 벤처 발전을 기원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 노력에 감사드린다.

'1사 1인 채용'이라는 넉넉한 나눔 정신의 실천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벤처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운동이 벤처필란트로피처럼 좀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나눔의 방법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해본다.